

# 이슬람은 폭력·무력의 종교일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프랜시스 로빈슨 외 지음 / 손주영 외 역음  
시공사 / 2만 8천원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코리알 수도원의 13세기 ‘찬송가 모음집’에 수록된 이슬람인과 그리스도교인의 류트 연주 장면.

## 아랍과 서구문명이 공유한 종교·문화적 뿌리 찾기

이슬람은 13억의 신도를 가진 세계 최대의 종교 중 하나이지만 가장 많이 왜곡되어 알려진 종교이기도 하다.

“이슬람교인가? 마호메트교인가?” “이슬람은 아랍만의 종교인가?” “이슬람은 폭력과 무력을 조장하는 종교인가?” 왜곡의 꼬리를 물며 이슬람은 14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 왔다. 이슬람은 본래 ‘순종과 평화’라는 뜻을 가졌다. 이러한 이슬람이 9·11 테러를 정점으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종교이자 문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에 달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는 이슬람 연구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8명의 학자가 각자의 전공을 살려 집필한 것

이다. ‘이슬람 역사의 발자취’와 ‘이슬람 문명의 정수를 찾아서’로 나뉜 이 책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슬람을 조명한 것은 물론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슬람이 갖는 의미가 되짚고 있다. 특히 프랜시스 로빈슨을 비롯한 학자들은 이슬람 세계와 서구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두 문명이 공유하고 있는 종교적, 지적, 문화적 뿌리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마드리드 서쪽에 자리한 에스코리알 수도원의 13세기 ‘찬송가 모음집’에 실린 이슬람인과 그리스도교인이 함께 류트를 연주하는 그림을 예로 들어 중세 유럽이 주로 스페인을 통해 아랍·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의 음악사에 관한 한 조사에서도 플라멩고 음악이 발달한 배경에는 공연 형식이나 노

래의 리듬,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랍의 영향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슬람은 우리나라와도 일찍부터 교류해 왔다. 이슬람에 정통한 간수 정수일 박사는 우리와 이슬람과의 교류가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고 말한다.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은 이슬람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개성 주변에 이슬람인들이 리 집성촌을 이루며 살 정도였다 한다. 또 개성에서는 ‘소주’를 ‘아라주’라 불렀는데 이것은 이라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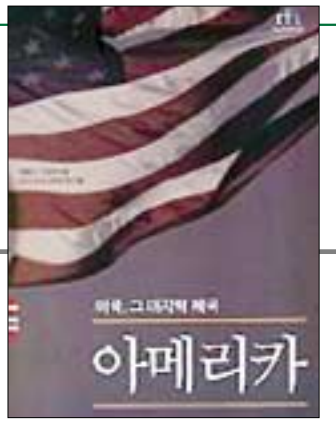
들여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슬람은 유럽 문명보다 400여 년 앞선 1154년에 세계 지도에서 ‘신라’를 표기했으며 유럽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한반도를 ‘코리아’라고 표기했다. 이는 이슬람 문명과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벗어 버리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opia.com



‘아메리카-미국, 그 마지막 제국’  
이그나시오 라모네 외 지음 / 최병권 · 이정옥 역음  
휴머니스트 / 1만 5천원



## 美 오만함이 무모한 전쟁 불렀다

세계최강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은 과연 어디로부 터 오는가? 미국은 왜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고 왜 이라크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악의 축’에 대해 끊임 없이 경계 하고 있는가? 미국의 세계 지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의 지배적 권력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부시 행정부의 국제 정치적 오만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가? 위의 질문들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상념들이고 또 의문이다.

이번에 <아메리카-미국, 그 마지막 제국>라는 책을 읽으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에서는 우선 미국을 ‘제국(empire)’이라고 전제 해 놓고 로마제국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제국(American Empire)의 이념적 배경은 기독교적 보수주의이고,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의 실체는 군사력에 있다. 미국의 연간 국방비(3800억 달러)는 나토의 군사비(1400억달러) 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국방비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다.

### 로마제국과 유사성·상이점 비교 분석

### 美 네 기둥 달러·인터넷·미사일·헐리우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중심축이다. 세계 정치의 핵심국가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지표를 제공하고, 미국의 표준은 세계의 표준이다. 미국의 군사적 목표를 모든 국가의 군사적 목표로 전위(轉位)시킬 수 있는 강대국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에서 첫째가는 국가가 아니라 1등부터 190등까지의 국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나라이다. 같은 논리로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세계 여러 국가의 대통령, 수상 등 모든 지도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 제국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 있다. 그것은 달러, 인터넷, 미사일, 헐리우드라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날 대량학살(아메리칸 인디언)과 인간의 노예화(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영토확장(멕시코), 식민지 정복(푸에르토리코)에 관여했지만 지금은 대중매체의 영웅들을 파견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영화, TV연속물, 만화와 비디오, 패션, 도시개발, 햄버거, 커피체인점 등 말하자면 현대판 트로이의 목마인 셈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The axis of evil)의 악은 영혼의 타락, 존재론적 위협을

상징하는 파멸의 심연을 말하며, 자신의 신을 경배하지 않고 공격하고 도전하는 세력은 철저히 박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은 기독교적 문명과 비기독교적 문명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고, 미국은 기독교적 문명의 지도자를 말한다. 이러한 부시 독트린은 편향적이고 단순한 국제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가이익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나쁜 놈들(bad guys)은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종교적 견해는 문제점이 없이 알아 불로우백(blow back:후폭풍)이라는 군사 용어로 로켓과 같은 화학연료가 발사될 때 화기의 뒷면에 생기는 화염 섞인 폭풍으로 비밀리에 수행했던 군사·외교정책들이 낳은 예기치 못한 결과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9·11 테러 사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 왜 알카에다와 빈 라덴이 생겼는가? 미국은 WTC빌딩테러에 대한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칙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국가간에는 자국중심주의적

과 문화적상대주의적 사고가 있는데 미국은 전자(前者)에 해당하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에 몰입해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 이 책의 저자들 대부분은 미국의 무모한 전쟁과 세계 지배자로서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SOFA의 불평등문제, 최근의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촛불시위 등은 우리국민들에게 있어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준다. 지난 50년간 한국과 미국은 혈맹의 관계·한국근대화의 후원자·민주주의의 교사 또는 군부 독재자의 음성적 지원자로서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문제는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이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세계변화의 흐름을 냉철하게 읽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바탕위에서 체계화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주는 좋은 길라잡이라 할만하다.

■ 황진수 /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아메리카-미국, 그 마지막 제국〉은 이그나시오 라모네(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 사장), 조셉 나이(하버드 대학 교수), 벤자민 바버(루저스대학 윌트휘트만 센터 소장), 조나단 포리드랜드(영국 가디언 기자) 등 세계의 지식인 64명이 논문, 시평, 보도, 문화평론 등을 통해 발표했던 ‘미국’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 매일 평화·여유롭게 지내려면...

### 호흡·스트레칭·감사 등 5가지 방법 제시



하루하루를 즐겁고 평화롭고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미국 뉴욕에서 11년 동안 스트레스 해소와 요가를 지도해 온 마나 해밀턴은 단언한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이다.

번잡한 일상에서 고요함을 찾게 하는 이 책은 현대인의 삶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길에서, 근무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의 일과를

여행하듯이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스트레스로 가득한 하루를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즐겁고 여유 있는 삶으로 바꾸어 줄 방법들을 알려준다.

저자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호흡, 스트레칭, 공감, 감사, 주의의 아를 다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호흡을 제대로 관

찰하기만 해도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스트레칭도 무조건적인 살 빼기를 위한 헬스 클럽에서의 운동과 달리 우리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순간순간 닦치는 모든 일에 대한 공감과 감사, 새로운 인식은 우리의 사고와 마음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가

라앉히는 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씀스이는 일상의 어느 순간에도 적용되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또한 이러한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뚝 넘치는 재미있는 글을 통해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독자가 바로 자신들의 삶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계 알람이 울릴 때 ‘아, 나는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라. 샤워하는 것은 부드럽고 안전한 척추 스트레칭임을 자각하라. 현관을 벗어나기 전 3분 동안 정신을 집중하라. 교통체증이 심할 때 주위 풍경을 감상하라. 밥 먹는 시간은 감사함을 연습할 기회다.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천천히 움직여라. 한가로운 산책으로 능력부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감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라. 식사가 준비되면 천천히 먹기를 연습하라 등이다. 이은자 기자